

진안군, 청년정책 활성화 집중

올해 직·간접 지원사업 포함 32개 사업에 27억원 예산 편성·추진

진안군은 새해를 맞아 힘차게 청년정책을 시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춘성 진안군수

올해 청년관련 정책으로 직·간접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32개 사업에 2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청년 상한연령을 기존 39세에서 만 45세로 연장하는 등 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청년

지원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하고 전·월세에 살고있는 청년(만 18세~만 45세)에게 월 최대 15만원씩 1년간(최대 180만원) 청년주거비용을 지원하고, 2019년부터 청년들에게 호응이 좋은 청년창업지원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으로 청년미래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청년 아카데미 및 청년 쉼어하우스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청년미래지원센터 마련 이전단계로 청년공간을 마련해서 소

통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할 계획이다. 더불어 청년협업체 활성화지원사업을 작년 대비 2배 증액하여 청년역량 및 청년소통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춘성 군수는 "청년정책 마련을 위한 일자리, 주거,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안군에 거주하는 청년들과 자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청년들이 원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정책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27일까지 신청 서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계에 제출

무주군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경영과 농가소득 지원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한다고 6일 밝혔다. 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과 농업경영인을 발굴해 일정기간 동안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한다는 취지다.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희망자는 오는 27일까지 사업계획서와 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 등 소정의 서류를 갖춰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계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50세 미만 농업인으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독립 영농 경력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또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 또는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군수가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예전에 받은 농업인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전북도 심의위원회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중순께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농업경영인 1인 당 최대 3억원까지 경영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농업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래 농업 인력의 주축이 될 농업인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무주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교육생 모집

무주군이 오는 29일까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공고일 현재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하 귀농 희망자로 무주군청 홈페이지에서 입교 신청서와 농업 창업계획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방문 신청(무주군 농업기술센터)하거나 이메일(bhh19@korea.kr) 접수

하면 된다. 무주군 관계자는 "최종 입교 세대는 농업 창업계획서와 귀농교육 이수, 농업·농촌분야 자격증 등을 기준으로 서류와 면접심사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준비된 귀농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수료생들의 호응도 좋은 만큼 귀농 계획이 있으시다면 관심을 가지고 도전해보시라"

고 전했다. 무주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귀농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입교를 희망하는 각 세대에 주택과 텃밭을 유상으로 제공하며 원에 시설하우스 1동과 버섯 시설하우스 1동, 공동경작지 1곳에서 3월부터 12월까지 영농 재배 실습과 귀농·귀촌 정착 실용 교육 및 농업 관련 경제·경영 기초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비는 주택 50㎡, 텃밭 33㎡ 내외 규모가 보증금(계약 만료 후 공과금 등을 정산한 후 반환) 60만원에 월 25만원, 주택 33㎡, 텃밭 33㎡ 규모는 보증금 40만원에 월 20만원이며 세대별 공과금(전기, 수도, 통신, 난방비 등)은 개별 부담한다. 특히 서울시민은 지자체 간(무주군&서울시) 업무협약 체결(2017년)로 서울시청 지역상생경제과에 무주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입교 신청을 하면 교육비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무주군 귀농귀촌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김장담그기 모습.

공공-작은 도서관 연계시스템 구축

장수군, 작은 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원 사업 선정

장수군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작은 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6일 장수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이번 사업에서 서울 종로구, 충남 홍성군, 전남 곡성군, 평양시, 경남 양산시와 함께 장수군이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작은 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원 사업은 지역 내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도서관 소장 자료를 공유하고 상호대차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군은 총사업비 1억3,500만원 중 70%에 해당하는 국비 9,500만원을 지원받아 자료 관리

시스템, 책임서비스, 통합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서버 증설, 전자태그(RFID) 부착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로써 운영이 어려웠던 읍면 6개소 작은 도서관이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를 이루어, 지역주민들은 작은 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과 같은 수준의 자료 이용과 대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영수 군수는 "작은 도서관이 지식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해 지역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 독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 350-2331(문화체육관광과 도서관팀)로 문의 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장학숙 입사생 모집

진안군은 2021년도 진안장학숙 입사생 68명(남 33, 여 35)을 모집한다. 입사 자격은 진안군에 보호자 또는 학생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정주시 소재 고등학교 및 전북권 대학교(전문대 포함) 신입·재학생이다. 선발기준은 학업성적, 생활정도,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로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신청은 2월 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며, 2월 중 입사생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하게 된다. 진안장학숙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및 손 소독제 제공, 발열 체크,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영양사와 조리사들은 입사생들의 영양적으로 균형 있는 식사를 책임지고, 사람이 24시간 상주하여 학생들의 안전 및 귀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시설 유지 보수 및 청결 유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장학숙 관계자는 "진안장학숙은 학생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미래사회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학원·교습소 17곳에 방역물품 배부

진안군은 6일 관내 학원 및 교습소 등 총 17개 대상에 겨울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방역물품은 전라북도에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원한 마스크 및 손세정제와 군 안전재난과에서 지원한 방역소독제이다. 전춘성 군수는 "어려운 여건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학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예방과 준비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이 17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학원·교습소에 대해 매주 방역점검을 실시,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4-H본부는 무주군을 찾아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황인홍 이사장에게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무주군 4-H본부, 군 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

무주군 4-H본부가 회원들이 정성껏 모은 장학금을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기탁, 관내 미래 세대들에게 소중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무주군 4-H본부(회장 최왕진)는 무주군을 찾아 황인홍 이사장에게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최왕진 회장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싶어 장학금을 기탁했다"며 "힘들어 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기회가 마련되고 제 공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4-H란 명석한 머리(Head, 智), 충

성스런 마음(Heart, 德育), 부지런한 손(Hands, 勞育) 및 건강한 몸(Health, 體育)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4-H본부는 농업·환경·생명의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농업과 농촌사회를 이끌어갈 전문농업인으로서 자질을 배양하고 있다. 황인홍 이사장은 "무주 4-H 회원들의 따뜻한 후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무주군 청소년들이 미래 발전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이 귀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